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사회탐구영역 **윤리와 사상** 정답 및 해설

최근 수정일 : 2024. 9. 9.(월)

01. ⑤ 02. ④ 03. ④ 04. ③ 05. ② 06. ③ 07. ⑤ 08. ④ 09. ② 10. ⑤
11. ⑤ 12. ① 13. ③ 14. ③ 15. ① 16. ③ 17. ④ 18. ① 19. ③ 20. ②

1. 맹자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 파악

정답 해설 : 가상 대화의 ‘스승’은 맹자이다. 맹자는 인간이 누구나 선천적으로 네 가지 선한 마음[四端]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의(仁義)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집의(集義)를 통해 길러지는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갖춰야 한다고 보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② 도가 사상에서 강조하는 삶의 태도이다.
- ③ 불교에서 강조하는 삶의 태도이다.
- ④ 순자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이다.

2. 사르트르와 듀이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사르트르, 을은 듀이이다. 사르트르는 인간을 먼저 실존한 다음 자신의 주체적인 선택을 통해 스스로를 형성해 가는 주체적 존재로 보았다. 따라서 인간은 매 순간 선택을 해야 한다는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주체적인 결단으로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짐으로써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L). 듀이는 도덕적 인간이란 도덕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지성을 발휘하여 자신의 삶을 개선하거나 사회를 진보시킬 수 있는 도덕 판단과 행위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보았다(R). **정답 ④**

[오답피하기]

- ㄱ. 사르트르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원리가 아니라 자신의 주체적인 선택으로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 ㄷ. 사르트르는 인간은 주체적인 결단을 통해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는 삶을 살 것을 주장하지만, 실존의 상황에서의 불안으로 인해 인간은 자유로운 선택을 회피하는 불성실을 피하기도 한다고 보았다.

3. 공자와 노자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공자, 을은 노자이다. 노자는 사회 혼란의 원인을 인간의 그릇된 인식과 가치관으로 보고, 인위적인 다스림이 없는 정치로 통치자의 정치적 간섭이 최소화될 때, 백성이 스스로 자기 일을 해 나갈 수 있다고 보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공자는 예를 인의 정신을 담고 있는 외면적 사회 규범으로 보았으며, 인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 규범으로 보았다.
- ② 공자는 “오직 어진 사람이라야 타인을 좋아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다.”라고 하며,

어진 사람[仁者]만이 공평무사하게 타인을 좋아할 수도, 미워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③ 노자는 사회적으로 규정된 명분에 맞는 품성이 아닌 도의 자연스러움에 따른 소박하고 순수한 덕을 회복해야 한다고 보았다.

⑤ 노자는 현명한 사람[賢者]을 숭상하지 않아야 백성들이 서로 다투지 않게 된다고 보았다.

4. 소크라테스와 벤담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소크라테스, 을은 벤담이다. 소크라테스는 지식을 모든 덕과 행복의 원천으로 보고, 무지의 자각을 통해 진리를 탐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벤담은 인간은 누구나 쾌락과 고통의 두 군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보고, 쾌락과 고통은 개인의 행위뿐만 아니라 사고까지 지배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소크라테스는 보편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이 존재하며, 이성을 통해 이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② 소크라테스는 유덕하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덕이 무엇인지 알면 유덕하게 행동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④ 벤담은 공리,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제시하였다.

⑤ 벤담은 공리주의를 주장하면서 행위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행복을 최대한 증진하는 방향으로 인간의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5. 중관 사상과 유식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중관 사상의 용수, 을은 유식 사상의 세친이다. 용수는 모든 존재는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없는 공(空)이며, 연기(緣起)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에 유(有)나 무(無)에 집착하는 관점을 벗어난 중도(中道)를 강조하였다. 세친은 공의 원리에 따라 모든 사물이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마음의 작용인 식(識)을 제대로 알고 수행하여 해탈에 이를 것을 강조하였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용수는 모든 현상이 인연에 따라 발생하고 소멸하지만, 실체가 없는 공(空)이라고 보았다.

③ 세친은 마음의 작용인 식(識)을 떠나서는 어떠한 실재도 없다고 보았다.

④ 세친은 수행을 통해 식(識)을 변화시켜 분별이 없는 마음인 지(智)를 얻어야 한다고 보았다.

⑤ 용수는 모든 현상에 고정불변하는 독자적이고 고유한 성질[自性]이 없다고 보았다.

6.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플라톤,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플라톤은 영혼의 정의가 실현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세 계층이 각자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정의가 실현된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를 자급자족적이고 구성원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가장 포괄적인 공동체라고 보았다(ㄴ). 플라톤은 개별적 좋음과는 독립된 보편적 좋음이 있다고 보았다. 이와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 세계의 ‘ 좋음 ’ 혹은 ‘ 좋은 것 ’ 이라고 말해지는, 개별적인 것들로부터 분리된 ‘ 그 자체로 존재하는 좋음 ’ 은 없다고 보았다(ㄹ). **정답 ③**

[오답피하기]

ㄱ. 플라톤은 영혼에서 이성이 지혜의 덕으로 비이성적인 부분인 기개와 욕구를 다스릴 때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욕구는 비이성적이지만 이성에 따를 수 있는 영혼의 한 부분이며, 실천적 지혜에 따라 욕구, 즉 감정과 행동이 과도하거나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다.

ㄷ. 플라톤은 선의 이데아를 인식하여 지혜의 덕을 갖춘 철학자가 국가를 통치할 때 정의로운 국가가 된다고 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좋음이 무엇인지 아는 덕은 실천적 지혜이며, 실천적 지혜는 철학자만이 지닌 지혜는 아니다.

7. 에피쿠로스와 밀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에피쿠로스, 을은 밀이다. 에피쿠로스는 참된 쾌락을 누리기 위해 사려 깊고 고상하며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보았다(ㄱ). 밀은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인간이 되는 편이 낫고, 만족한 바보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편이 낫다.”라는 말을 통해 질적으로 높은 쾌락은 쾌락의 양적 차이를 무관하게 할 만큼 더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ㄴ). 또한 에피쿠로스, 밀 모두 쾌락주의 사상가로 쾌락이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보았다(ㄷ). **정답 ⑤**

8. 주희와 왕수인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주희, 을은 왕수인이다. 왕수인은 마음 밖에는 이치가 없으며, 마음과 무관한 사물도 없다고 보면서, 양지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발휘하여 마음이 있는 곳의 일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주희는 마음[心]이 마음의 본체인 성(性)과 마음의 작용인 정(情)을 포괄하고 통솔한다고 보았다.

② 주희는 인간의 본연지성은 순선하지만, 인간을 구성하는 기질지성의 맑고 흐린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보아 기질을 맑게 변화시키는 수양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③ 왕수인은 양지를 마음의 본체이자 하늘의 이치로서, 숙고하지 않아도 선천적으로 아는 작용이자 실체라고 보았다.

⑤ 주희는 하늘로부터 사물에 부여된 이치를 탐구하여 앎을 지극히 할 것[格物致知]을 주장하였다.

9. 아리스토텔레스와 로크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아리스토텔레스, 을은 로크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를 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최고의 공동체로 보았다(ㄱ). 로크는 사회 계약을 통해 구성된 정부는 입법권과 집행권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보았다(ㄷ). **정답 ②**

[오답피하기]

ㄴ.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모든 사람이 자연법의 재판관이자 집행자이기 때문에 권위를 가진 공평무사한 법의 집행자로서 재판관이 없다고 보았다.

ㄹ.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의 목적이 시민을 행복한 삶, 도덕적 삶으로 인도하는 데 있다고 본 반면, 로크는 사회 구성원들의 선(善), 안전 및 평화를 실현하고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목적이라고 보았다.

10. 스피노자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스피노자이다. 스피노자는 세상의 모든 일이 원인과 결과로,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스피노자는 신적 본성인 필연성이 자연법칙이라는 무한한 양태를 매개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② 스피노자는 자연의 모든 개별 사물이 하나의 실체, 즉 신이 보여 주는 여러 가지 모습의 양태라고 보았다.

③ 스피노자는 유일한 실체인 신의 속성으로서의 양태는 무한한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보았다.

④ 스피노자는 자연 안에 어떤 것도 우연한 것은 없고, 모든 것이 신의 선택과 결정이 아니라 신의 본성인 필연성에 의해 존재하고 작용하게끔 결정되어 있다고 보았다.

11. 정약용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정약용은 인간이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영지의 기호, 선이나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주지권(自主之權)을 가지기에, 만약 악행을 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보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정약용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기호와 함께 선할 수도 악할 수도 있는 권형(權衡), 악하기 쉬운 행사(行事)를 부여받는다고 보았다.

② 정약용은 인간의 욕구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도덕적 실천을 위한 삶의 추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③ 정약용은 인간과 동물이 모두 가지고 있는 형구의 기호를 따를 때 선택하기는 어렵고 악하기 쉽다고 보았다.

④ 정약용은 측은·수오·사양·시비의 사심(四心)을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확충해 사덕(四德)을 형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12. 칸트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는 의지를 이성이 경향성에 독립해서 선하다고 인식하는 것만을 선택하는 능력으로 보았고, 선의지는 실천 법칙을 따르는 행위만을 이끄는 의지라고 보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칸트는 선의지를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에서 행위를 하는 의지로 보면서, 이때 의무는 선의지의 원리가 인간의 의지에서 일종의 강제로 경험된다고 보았다.
- ③ 칸트는 도덕 법칙이 행위의 목적과 관계 없이 오로지 행위가 나오는 원리와 형식에만 관계한다고 보았을 뿐 의무의 실행 방법까지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④ 칸트는 인간이 욕망과 선의지, 정념과 이성이 선천적으로 함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세운 준칙이 아니라 도덕 법칙, 즉 자율에 복종하는 의지의 자유를 강조하였다.
- ⑤ 칸트는 의무 의식이 동기가 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니며, 합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어지는 가언 명령은 도덕 법칙의 형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13. 벌린과 비롤리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벌린, 을은 비롤리이다. 비롤리는 인간이 공동선을 추구하는 사회적 존재라고 보면서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강조한다. 또한 자연권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는 단지 도덕적 열망이나 주장에 불과하며, 공동체의 법이나 관습에 의해 유지되는 권리가 시민의 자유로운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본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벌린은 간섭의 부재로서의 소극적 자유를 진정한 의미의 자유라고 보았다.
- ② 벌린은 간섭과 예측의 부재 속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자유가 아닌 그 자체로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보면서, 진정한 자유의 영역은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 영역에 비례한다고 보았다.
- ④ 비롤리는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공공선을 지향하고 덕을 형성하는 동기를 함양할 수 있으며, 시민의 권리는 제도적 노력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본다.
- ⑤ 벌린은 자유를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한 것을 달성하는 것으로 보았지만, 타인의 동일한 자유와 양립하는 한에서 그 자유가 정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법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비롤리는 법에 따라 가해지는 제한이나 간섭은 공화주의적 자유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라고 본다.

14. 원효와 지눌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원효, 을은 지눌이다. 지눌은 스승과 제자 사이에 마음으로 주고받는 가르침이 중요하며 훌륭한 스승[祖師]이 필요하다고 보았다(ㄷ). 원효는 언어와 교리에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대립을 넘어 회통(回通)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지눌은 혜능의 종지를 계승하여 언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언어에 대한 집착을 경계해야 한

다고 보았다(ㄹ).

정답 ③

[오답피하기]

- ㄱ. 원효의 화쟁(和諍) 사상은 대립하고 갈등하는 여러 불교 종파를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아우르려는 것이지, 단일한 교리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 ㄴ. 지눌은 점수(漸修)가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것이라고 보았다.

15. 케인스, 하이에크, 마르크스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케인스, 을은 하이에크, 병은 마르크스이다. 케인스는 불황과 실업 등의 시장 실패를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규제를 통해 교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하이에크는 정부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기능을 축소하고 시장 경제를 확대할 것을 주장하였다.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를 붕괴시키고 공산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케인스는 시장의 자율성만으로는 유효 수요를 창출할 수 없기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③ 마르크스는 사적 소유를 철폐하고 생산 수단의 공유화 등을 통해 경제적 평등이 실현된 공산 사회가 도래하면 궁극적으로 국가가 소멸할 것이라고 보았다.
- ④ 하이에크는 시장의 빈곤, 실업, 불황과 같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자생적 질서의 특징이라고 보았다.
- ⑤ 마르크스는 자본가에 의해 노동이 강제되는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 양식이 노동자가 자신의 본질을 실현할 수 없는 노동 소외를 야기한다고 보았다.

16.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아우구스티누스, 을은 아퀴나스이다. 아퀴나스는 신을 따르고 종교적 덕을 실천함으로써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을 완전한 행복으로 보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아우구스티누스는 완전한 행복은 신앙을 통해 신에게 귀의하고 신의 은총을 받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 ②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이 모든 완전성의 원리이고 원천이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한 존재로 보았다.
- ④ 아퀴나스는 완전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종교적 덕을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⑤ 아퀴나스는 신의 존재를 이성적 논증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17. 흄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흄이다. 흄은 도덕적 선악이 이성적으로 판단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바라볼 때 느끼는 시인의 감정이나 부인의 감정을 표

현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품성과 행위에 대한 선악은 이성에 의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관찰자의 마음에 끼친 영향의 결과라고 보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흠은 이성이 의지를 지도하면서 감정에 반대할 수 없다고 보았다.
- ② 흠은 이성 혼자서는 어떤 의지 작용의 동기도 될 수 없다고 보았다.
- ③ 흠은 개별적 이익과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공감의 능력이 도덕성의 기초라고 보았다.
- ⑤ 흠은 사람의 품성과 행위에서 발생하는 쾌락이나 고통의 모든 감정이 공평한 도덕적 평가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18. 플라톤과 모어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플라톤, 을은 모어이다. 플라톤은 국가를 인간의 영혼이 확대된 것으로 보면서, 이상 국가에서는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세 계층이 모두 공통으로 절제의 덕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ㄱ). 모어는 생산과 소유의 평등이 실현되고, 구성원들이 필요 이상의 노동을 하지 않는 유토피아를 주장하였다(ㄷ). **정답 ①**

[오답피하기]

- ㄴ. 플라톤은 교육을 통해 훌륭한 수호자를 만들고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 필요한 덕을 갖추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 ㄴ. 플라톤은 이상 국가를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계층의 사람들이 각자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룬 국가라고 보았다.

19. 이항과 이이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이항, 을은 이이이다. 이이는 작용이 없는 이(理)는 발하는 까닭[所以]이고, 작용이 있는 기(氣)는 발하는 것이기에, 도덕 감정이 드러나는 것은 기가 반드시 발해야 한다고 보았다(ㄴ). 또한 이항, 이이 모두 성리학자로서 이와 기가 구체적인 사물에서는 별개로 분리될 수 없다[理氣不相離]고 보았다(ㄹ). **정답 ③**

[오답피하기]

- ㄱ. 이항은 사단을 이가 발하여 기가 이를 따른 것[理發而氣隨之]으로 보았다.
- ㄷ. 이이는 사람의 성(性)이 사물의 성이 아닌 것은 기가 제한[氣局]되기 때문이고, 사람의 이(理)가 사물의 이인 것은 이가 통[理通]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20. 동도서기론과 동학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동도서기론, (나)는 동학이다. 동학에서는 조선 후기 유교 사회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모순을 극복하는 사회 변혁을 통해 어두운 선천(先天) 세계를 끝내고 후천(後天)의 새로운 세계를 열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동도서기론의 입장에 비해 동학의 입장은 X, Y, Z 모두 높다. **정답 ②**